

7. 역사의 명멸(明滅) 지켜 본 관덕정(觀德亭)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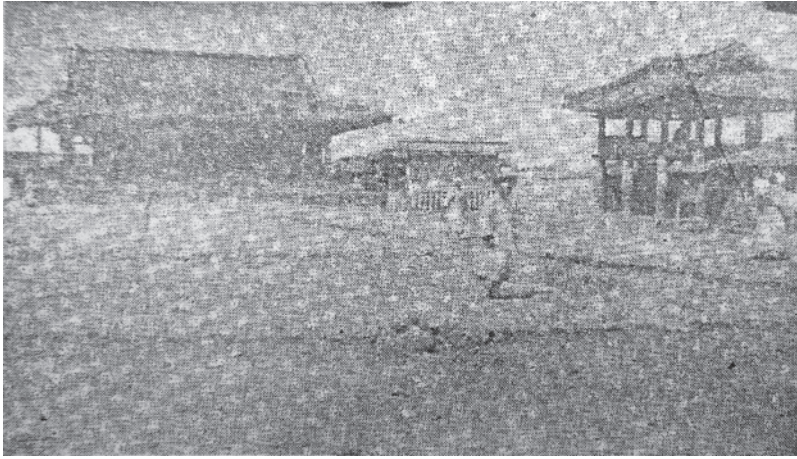
- ◎ 역사의 흐름 속에 심판(審判)과 축제(祝祭)의 현장 모두 지켜봐
- ◎ 세종(世宗) 때 신숙청(辛淑淸) 목사(牧使)가 창건(創建), 10여 차례 보수 거쳐 오늘에

모든 사적이 소멸돼버린 제주도에서 관덕정을 끝까지 지탱하여 오늘에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백실킬득(百失一得)이라 하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건평 68평으로 꽤 넓은 팔작형(八作型) 목조와가인 관덕정은 5백년이 훨씬 넘는 조선시대 초의 건물로 본도에서는 가장 오랜 건물이라고 하겠다.

이 건물은 정부 수립 후 본도에서는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다가 문화재 재분류에서 보물 322호로 지정(1963. 02. 07)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덕정을 창건한 것은 1448년(세종 30) 당시 안무사(按撫使) 신숙청

12) 『한라일보』 제36호 (1989. 06. 03).



1900년대의 관덕정(觀德亭) | 오른쪽 누각은 동헌(東軒) 입구에 있던 포정문(布政門).

(辛淑晴)이 군사들이 활을 쏘는데 필요한 사정(射亭)과 훈련 때 쓸 도장으로 짓게 된 것이지만 이 건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양찬(梁贊, 1480년), 이우항(李宇恒, 1690년), 김몽규(金夢奎, 1753년), 황최언(黃最彦, 1779년), 한응호(韓應浩, 1834년), 이현공(李玄功, 1851년), 박선양(朴善陽, 1882년) 등 여러 목사들과 일제 때(1924년)의 전전선차(前田善次) 도사 그리고 근래(1968년)에 와서 구자춘(具滋春) 지사 등이 제 때에 보수를 하고 아낀 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요승(妖僧)의 예언(豫言)

관덕정은 지으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람 잘 날 없었던 곳이지만 상량(上樑) 때도 희한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관덕정과 포정문 | 왼쪽의 관덕정은 병사들의 무예연습을 위한 사정(射亭)이었다. 오른쪽은 제주목관아의 정문으로 진해루로 불리다가 포정문으로 바뀌었다.

목수들이 나무를 장만하여 기둥을 세우면 무너지고 또 세우면 무너지고 하여 상량을 하지 못하고 애를 태웠다. 목수들이 또 다가들어 기둥을 세워 보를 얹히고 마룻도리를 올려 상량을 하려는데 웬 스님이 지나다 “고생들 한다마는 또 무너지겠군…”하고 혀를 차며 지나갔다. “웬 늙은 중이 불난 데 부채질이나.”고 욕을 퍼부었지만 그 요승(妖僧)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다.

나중이야 그 요승의 말이 예삿말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수소문 끝에 그 스님을 찾아 처방을 부탁했다. 그는 대뜸 “사람의 희생이 따라야겠는데…”하고 난처한 표정을 짓고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상량을 하라고 택일해 주었다. 그가 일러준 대로 상량을 하려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다. 택일을 어길 수가 없어 그대로 막 상량을 하려는데 웬 여인이 가마를 지고 그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술전에 머리를 다쳐 그대로 직사했다. 그 뒤



관덕정 내부 벽화(남향) | 관덕정 내부 창방 남북 2면에 총 7폭의 벽화가 그려 있다. 작자 미상.

로는 무너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벽화(壁畵)의 전설

지금도 관덕정에는 일곱 폭의 벽화가 있어 유명하지만 이 그림의 작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제 나름의 추정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전거는 없다. 최근에 어느 분은 지상에서 안견(安堅)의 그림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논리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만약 그의 그림이었다면 그가 이미(1447년) 안평대군(安平大君)을 위해서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를 그려 유명했는데 고득중(高得宗)의 의뢰를 받고 관덕정창건기(觀德亭創建記)를 쓴 신석조(辛碩祖)가 굳이 빼놓았을 리가 없다.

이 벽화는 두보(杜甫)의 취과양주궐만교(醉過楊州橘滿較)를 비롯하여 상산사호(商山四皓), 적벽대첩도(赤壁大捷圖), 대수렵도(大狩獵圖), 진중서성탄금도(陣中西城彈琴圖), 홍문연(鴻門宴), 십장생도(十長生圖) 등 모두 7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십장생도에는 산, 바다, 구름, 돌, 소나무, 대, 잔디, 사슴, 두루미, 거북 등 불로장생 열 가지를 그리면서



관덕정 내부 벽화(복합) | 총 7폭의 벽화 주제는 취과양주굴만교, 상산사호, 적벽대첩도, 대수렵도, 진중서성탄금도, 흥문연, 십장생도이다.

용을 빼놓았다고 하여 화가 난 용이 이 그림의 작자가 떠날 때 갑자기 노도를 일으켜 그를 제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관덕정 정면에 건 편액 “관덕정(觀德亭)”은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安平大君)의 글씨로 유명하다. 선조(宣祖)¹³⁾때 제주도를 다녀 간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을 보면 “비해당의 액자는 불에 타 없어지고 지금 걸려 있는 것은 아계(鵞溪, 李山海)의 필적이다.”고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분은 이산해의 글씨로 주장하고 있지만 불이 났던 사실도 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로 생각된다.

편액(扁額)은 안평대군(安平大君)

정내(亭內)에 들어서면 천정에 커다란 편액 “탐라형승(耽羅形勝)”이 있는데 이것은 정조(正祖) 때(1780년)의 목사 김영수(金永綏)¹⁴⁾의 휘호이

13) 신문에는 인조(仁祖)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상헌이 길운절·소덕유 모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제주민 안무를 맡고 제주에 체류했던 때는 1601년~1602년이다. 이 때는 선조(宣祖) 34년~35년이므로 선조로 바로 잡음.

14) 신문에는 김영완(金永緩)으로 되어 있다. 김영수(金永綏)의 오기이다.



! 관덕정 편액 3점 ! 건물 정면 현판은 관덕정, 건물 내 천정에 큰 글씨의 '탐라형승' (정조 때 김 영수 목사), 작은 글씨의 '호남제일정' (고종 때 박선양 목사)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관덕정 현판 글씨의 주인공이 안평대군(신석조, 「관덕정기」)인지 이산해(김상헌, 「남사록」)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며 또 한쪽에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란 현판이 있는데 이것은 고종 (高宗) 때(1882년) 목사 박선양(朴善陽)이 보수를 마치고 기념으로 편액 한 것이다.

제주시 삼도동 983번지. 시가의 한 복판에 의젓이 자리 잡고 앉은 관 덕정. 비록 창건 동기는 군사들의 훈련이었다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시취(試取)나 전최(殿最)의 현장이 되기도 했고 조점(擲點)이나 점마(點馬) 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목사나 관리들의 전유물로만 끝난 것도 아니었다. 민란이 일어나고 노한 군중들이 몰려 왔을 때는 응징 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재판과 처형의 현장이기도 했고 경사가
났을 때는 축제의 현장이기도 했다. 그 앞에 넓게 퍼진 광장과 함께 관
덕정은 제주성의 중심에 자리한 만큼이나 언제나 흐름의 중심에 서서
5백년 역사의 명멸(明滅)을 눈앞에 지켜본 유서 깊은 현장이었다고 할
것이다.